품질·패키지 모두 세계서 인정받아

정부의 환경정책에 적극 동참하는 제품생산에 주력

지난 57년에 설립되어 75년에 정식으로 사내에 개발부를 두고 용기팀과 패키지팀을 나누어 운영할 때에만 해도 그다지 많은 인원이 없었으나 현재는 개발부만도 20여명이나 되며 민양기 이사를 비롯하여 임권근 차장이 팀을 실질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개발부는 기초, 색조, 팩키지팀, 기술관리, 설계파트로 구분되어 있으며 기초팀은 여성용 기초제품·향수·두발제품, 색조팀은 색조·남성용 제품·베이비제품, 패키지파트는 두 분야의 패키지 디자인을, 기술관리는 품질관리를, 설계파트는 제품설계를 담당하고 있다.

화장품디자인은 일상생활에 쓰이는 생활용품과는 달리 여성의 개인용품이므로 칼라가 강하지 않고 파스텔 계통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패키지는 연도와 생활패턴에 따라 달라진다. 예전의 70년도에는 심플한 디자인을 추구했는가 하면 80년대 하반기에는 고도의 디자인이 요구되었고 90년대에는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복고쪽으로 가면서도 현대감각을 살리는 디자인이 채택되고 있다.

개발부 총 책임을 맡고 있는 민양기 이사는 최근 화장품 회사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더욱이 시장개방에 따라 외국업체들의 국내진출이 활발해져 업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피어리스는 최근 정부의 환경정책에 최대한 부응하기 위해 라미네이팅이나 코팅을 배제하고 재생용지를 사용하거나 리필품목을 점차적으로 늘리는 등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계속 개발해 낼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들이 폐기시 편리할수 있도록 접착제 사용에 주의하는 등 폐기물을 줄이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피어리스의 수상경력은 그들의 역사만큼이나 화려하다. 90년 아시아 스타 포장디자인 콘테스트(Asia Star Packaging Design Contest)에서 '아미드팜' 메이크업 제품이 포장디자인으로 90년 아시아스타상을 수상하였고, 93년에는 '오베론' 메이크업 화장품이 93 아시아스타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91년에는 W.P.O(세계포장기구)에서 개최하는 91 세계포장디자인 총회에서 국내 최초로 '아미드팜' 메이크업이 91월드스타상을 수상하였고 또 오베론 메이크업이 93월드스타상을 '알로에 90' 제품이·94월드스타상을 수상함으로써 3년 연속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이렇듯 화려한 피어리스의 수상경력이 곧 매출을 끌어 올리는 결과를 낳게 되었고 국내외에서 화장품 포장디자인의 우수성을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

▲ 20명으로 구성된 개발부가족

93월드 스타상에 빛나는 피어리스

오베론 바디제품의 전체적인 모티브는 목욕후 여성의 우아한 자태와 수줍게 피어나는 카라꽃 모양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인체공학적으로 가장 편안한 형태인 타원형을 기본으로하여 섬세하고 여성적인 감각을 표현하였다. 또한 용기의 구조는 종전의 제품에서는 볼수 없었던 개폐구조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캡기능을 보강하고 불량률을 최소화시켰으며 제질을 욕실제품임을 고려하여 파손의 우려가 적은 PE, ABS, PP를 사용하고 플라스틱 표면에 UV 코팅을 삭제하여 환경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더욱이 이 제품은 94년 국제우수품질대상에서 3년연속 수상하여 이달 영국에서 수상하게 된다.

아르보아 기초화장품 포장은 그린라운드 시대를 대비하고 고품격 · 고품질 선호의 소비자 NEED에 부응하는 Ecology제품의 이미지를 전달하는 용기와 패키지를 개발했다. 이것은 원가절감과 생산 및 수송, 보관효율의 증대를 도모하고 재생지 활용 및 환경오염을 방지시키는 가공법등으로 환경적인 측면도 고려되었다. 또한 단상자에서는 전통적인 재료인 한지를 새로운 차원에서 그래픽화하여 한국적인 디자인을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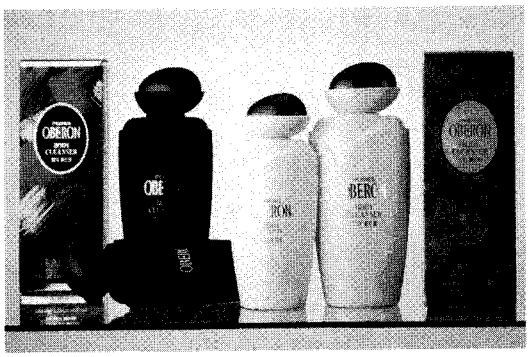
경쟁이 치열한 업계인 만큼 각 분야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피어리스는 이미 10여년전 부터 컴퓨터설계 시스템을 도입하여 보다 많은 각도로 응용해 최고의 제품을 창조하였고 컴퓨터로 금형까지 제작하여 원가절감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디자인 선정 과정을 타회사와 달리 많은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사장을 비롯한 경연진이 참석하여 최종제품을 선별하고 있다.

"디자인 창조작업은 사람의 인체 등 모든 만물을 주의깊게 관찰하고 그것과 조화롭게 연결시켜야 하며 패키지디자이너는 디자인 이외에도 용기의 재질이나 제품자체의 특성 등 전 분야를 알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라고 토로하는 임 차장은 현재는 실무선에는 물러나 관리를 하고 있지만 늘 자신이 디자이너라는 사실을 명심하며 지금은 후배들의 좋은 디자인을 대하는 것으로도 큰 기쁨을 갖는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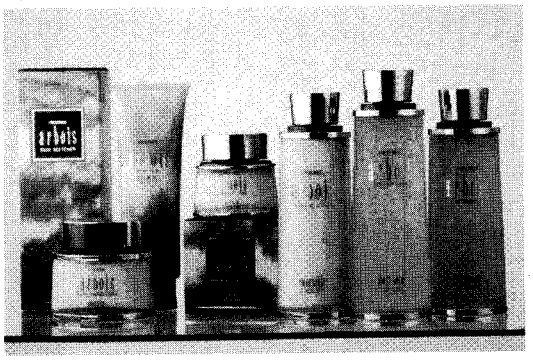
특히 시장조사와 부서구성원간에 토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피어리스는 그들의 화려한 수상경력이 대변해 주는 신뢰감을 제외하더라도 실력있는 디자이너와 잘짜여진 조직체계가 좋은 제품을 생산해내는 원동력일 것이라 짐작해 보았다.

패키지디자인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피어리스는 앞으로 국제경쟁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품질, 패키지, 가격이 삼박자를 맞추어 나갈 것이다.

이선하 기자



▲ 오베론 바디 메이크업



▲ 아르보아 기초화장품